

# 46. 배움을 실천한 삶

만손자 안도가 성균관에 유학하고 있을 때  
만손부 권씨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.



그런데 증손자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 
안도로 부터 편지가 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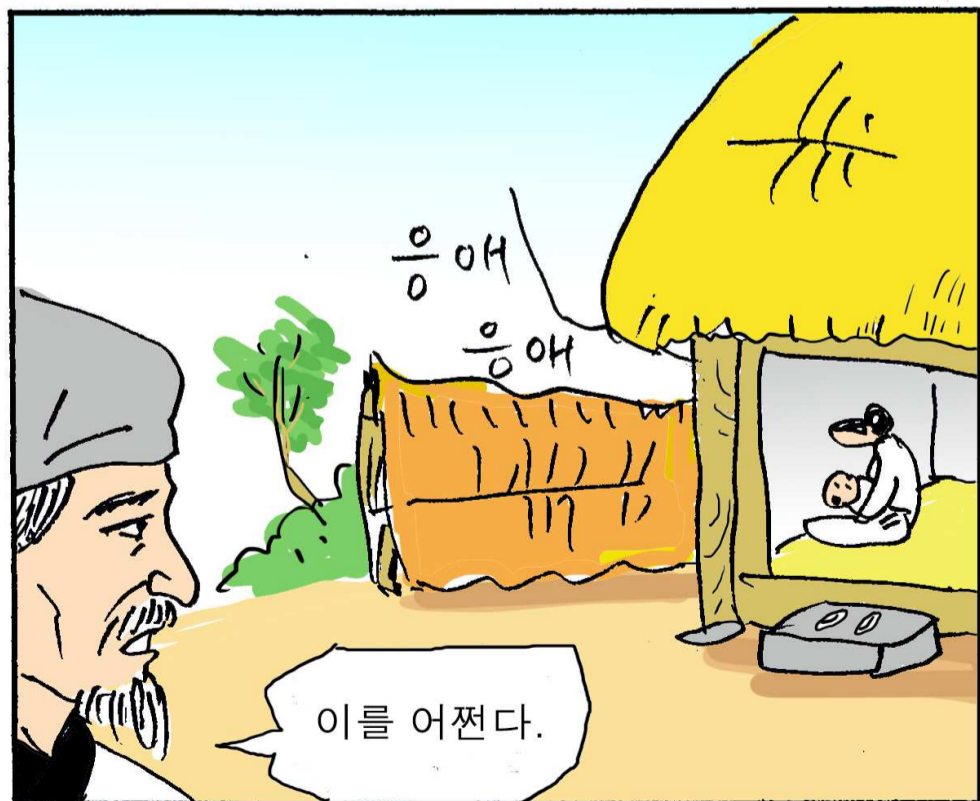
급히 전해드리라  
하셨습니다.



아기 젖이 많이 부족  
합니다. 하녀 학덕이를  
유모로 급히 올려보내  
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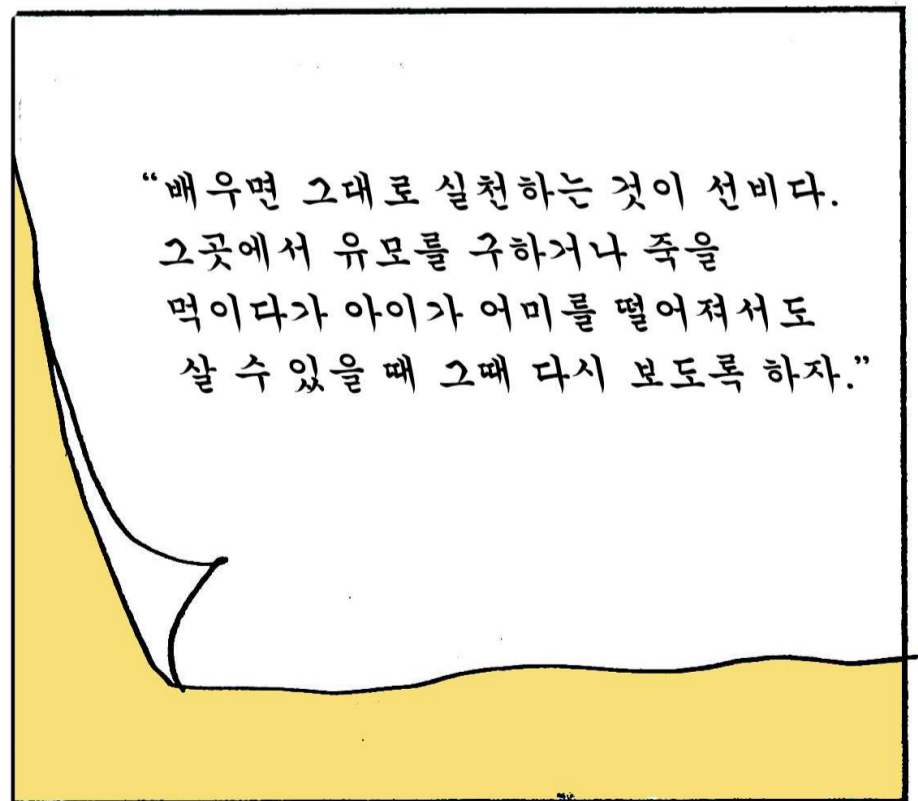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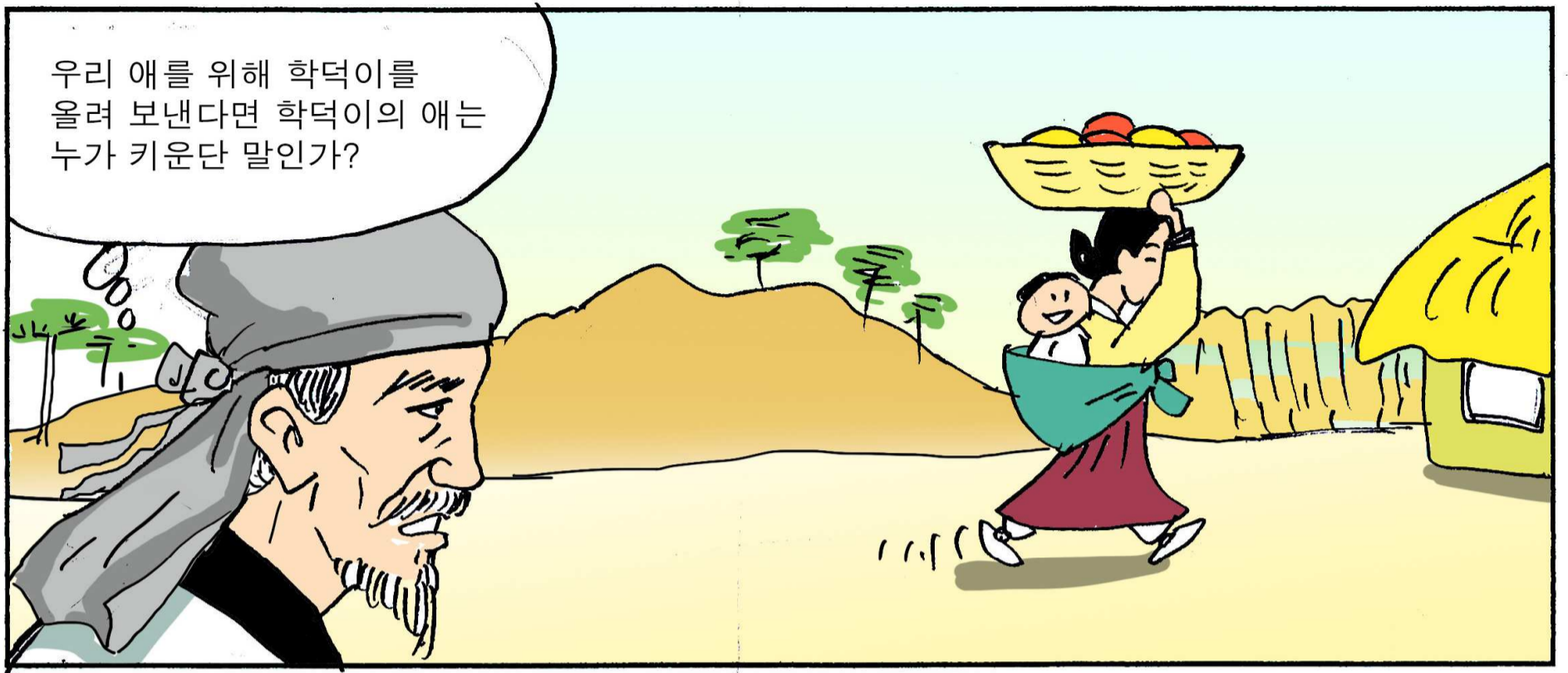


이거 참, 하필 이때  
학덕이도 애를 낳아  
젖을 먹여 키우고  
있잖은가.



이를 어쩐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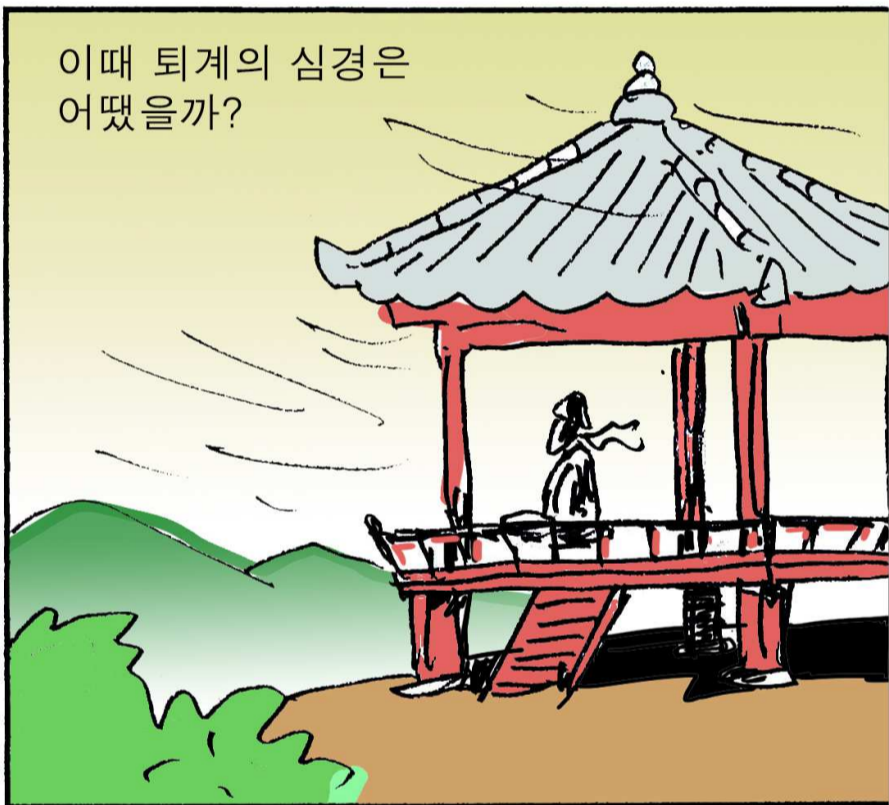
그로부터 얼마 후



증손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!



이때 퇴계의 심경은 어땠을까?



아이를 잃은 권씨 부인은 퇴계선생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정성을 다해 섬겼다.

母不致  
慎其獨  
毋自欺  
思無邪



퇴계선생께서 살아계실 때 극진히 모시고 돌아가신 뒤에도 국난 중에 피난을 다니면서도 선생의 유품을 보존한 말손부 권씨부인에게 훗날 정려문이 내려졌다.

